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며

김 봉 식
한국고분자학회 회장

한국고분자학회가 1976년 10월 8일에 창립된 지 어느덧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이후 한국고분자학회는 고분자과학과 고분자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여 폭 넓은 학회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고분자과학은 화학, 생물학, 물리학의 접점에서 각 학문분야에 깊게 기초를 두고 지금도 새로운 전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분자 관련 산업들이 첨단 고분자재료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응하여 고분자과학은 나노기술, 정보기술 및 생명기술 등과의 상호 융합기술을 기초 축으로 하여 새로운 기능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 성장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고분자산업은 전자, 섬유, 자동차 산업 등과 관련하여 정보통신, 환경, 자원 에너지, 건강, 복지 등 21세기의 사회기반을 구성하는 전 분야에 있어서 그 발전을 단단히 받쳐주는 핵심 재료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고분자학회는 고분자산업과 주변산업을 과학・기술의 양면으로부터 받쳐주는 학회로서, 현 회원 수가 3,000명 이상으로 고분자분야에 있어 세계적으로도 매우 큰 학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1976년 창립 당시, 회원 수 340명에서 시작하여 30주년을 맞이한 현재는 3,045명으로 증가하였고, 춘・추계 정기총회 및 학술 발표회의 참가 회원 수도 각각 창립 당시 180명에서 30주년이 된 현재에는 1,600명 이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논문발표 수 또한 20편에서 800편 이상의 규모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어느 학술단체보다도 역동적 성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고분자학회는 1977년에 최초의 학술지 "폴리머"지를 창간하였고, 1990년에는 "고분자 과학과 기술"지, 그리고 1993년에는 영문지인 "Korean Polymer Journal"을 창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2002년에 "Macromolecular Research"로 개명). 이 영문지는 2002년에 Science Citation Index(SCI)에 등재되어 impact factor 0.988을 기록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1.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한국고분자학회가 양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증가였음을 보이는 결과이고, 한국고분학회가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학회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한국고분자학회는 1979년에 제 1회 한・일 고분자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시하였고, 그 후 IUPAC 미니 국제심포지엄(1989), IUPAC MACRO SEOUL '96 Symposium(1996) 및 Pacific Polymer Conference(1997) 등을 개최하면서 본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여 왔습니다. 또한 현대 고분자과학의 발전과 함께 고분자재료의 용도도 다양하게 됨에 따라, 1992년에는 우리 학회 내에 분자전자부문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1993년에는 의료용고분자부문위원회가 탄생하여 각각 활발한 학술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분자학회가 발전하여 오면서 창립 24년이 지난 2000년에는 투표에 의한 회장 선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더욱이 2006년에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후원 및 고분자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여 온 학회로서, 창립 30주년 이래 최초로 산업계 회장을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회장 선출 제도에도 큰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산업계 회장제도의 도입은 학회의 발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 학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최근 들어 고분자대토론회(2006년 5월 19~20일, 제주 그랜드호텔)와 IUPAC 국제학술심포지엄(2006년 10월 10~13일, 부산 BEXCO)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국제학술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저명 고분자과학자 약 2,000명의 참가와 1,500여 편의 학술발표가 있었으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한국고분자학회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학회가 이렇게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임 회장단, 임원 및 운영이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그리고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함에 있어 함께 수고하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관계 기관 및 산업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창립 30주년을 계기로 해서 본 학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더욱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모든 회원과 함께 기원하는 바입니다.